

Vol. 4 | 2018 WINTER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2018년 교육 트렌드 핫 이슈
2019년 교육 트렌드 전망과 티처빌의 방향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티처빌'

Class Know-How

유튜브로 교육격차 해소를 꿈꾸다 아꿈선!
수업 공동체를 통해 교사는 성장한다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수업
삶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풍성하게!

Interview & People

헤민스님, 휴식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과정중심평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꾸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핀란드'

Inside Culture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생강차, 색다르게 즐겨보자

겨울이 오면

임승천

겨울이 오면 또다시 겨울이 오면
물빛 보이지 않는 그 결빙의 날에
눈 내리는 밤은 뜨거운 가슴으로 오고

하나 둘 별이 보이는 또 다른 밤
먼 바다 등대로 다가오는 불빛을 보아라

울음 억세게 우는 억새풀 자락 끝에는
진한 들풀의 소리가 휘파람처럼 지나고

내딛는 발자국마다 쌓이던 함박눈
빛나는 눈빛과 불빛 사이
날카로운 절벽 끝으로 빛나는 칼날

칼끝에 흠어지는 때 묻은 날의 골목
지나는 바람을 따라 거리로 나선다

흠어지는 바람이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겨울을 위하여
그리고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위하여





티처빌 매거진

Vol. 4 | 2018 WINTER

사진 윤여옥

겨울의 추억

서울 목운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photoyyo.com>

시 임승천

1985년 월간 《심상》으로 등단하였고, 2009년
기독교문학상과 2014년 월간문학상을 수상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
(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18년 12월 17일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 티처빌 매거진 TF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NTENTS

티처빌 매거진 2018 겨울호



Zoom in Focus

- 04 모든 길은 학습자로 통한다 | 김진숙
- 08 2018년 가장 사랑받은 티처몰 교구 & 티처빌 연수 Top5
- 10 미래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 김지혜
- 14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티처빌' | 김주는



Class Know-How

- 18 유튜브로 교육격차 해소를 꿈꾸다 아공선! | 한도윤
- 22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보드게임 | 유소연
- 24 수업 공동체를 통해 교사는 성장한다 | 김현섭
- 26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수업 | 정소희
- 28 삶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풍성하게! | 최선경



Hot EduTech

- 30 메이커 교육, 수업 시간을 디자인하다 | 전상현
- 32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 | 이용일
- 34 다시 승천하는 중국의 미래를 엿보다 | 김경원



Interview & People

- 36 휴식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 윤민영
- 40 과정중심평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꾸다! | 유영식
- 42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핀란드' | 박지영

Teacherville News

- 46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50 마이크로러닝, 그 시작 '차시연수' | 박예은
- 52 내 연수는 내 맘대로! 티처빌 '상시연수' 론칭 | 남아람
- 54 2019년 티처빌연수원 상반기 학사 일정
- 55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Inside Culture

- 56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생강차, 색다르게 즐겨보자 | 장경진

Book

- 58 신간소개 - 학생 중심의 혁신적 교육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 교육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와 과정중심평가 KEY 교육과정 문해력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 가는 행복 솔루션 수업 방해 / 학교 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 학교 자치



Cartoon

- 62 교사 일상 웹툰 - 권선생 단상툰 | 최성권

2018

교육 트렌드 핫 이슈

모든 길은 학습자로 통한다

글.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기획실장

2018년 교육계의 화두는 '미래 교육'이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에는 '미래사회 대응', '미래 학습자 역량', '미래 학습 환경' 등의 용어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반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가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로 끝나지 않을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올해 교육 분야에서 회자했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확인해 보자.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한 명 한 명의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이며, 이를 둘러싼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역량의 적정성 논란보다는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활동이
학습자 중심 경험 설계에 맞출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과 미래 학습 역량과의 관계 설정

2017년부터 시행된 현재의 교육과정은 2015년도에 만들어져 고시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학생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6대 핵심역량을 제시한다. 6대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역량을 처음 언급하고, 이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길러져야 할 능력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진일보된 것이다. 그렇다면 6대 핵심역량은 향후 4년간 유지될 수 있는 ‘미래핵심학습역량’으로 손색이 없을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미래’라는 용어가 부쩍 많이 쓰인 시기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이후부터이다. WEF에서는 매년 5년 단위로 10가지 미래 학습 역량을 발표하고 있다. 역량의 분류를 크게 인지적, 감성적,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보면, 6대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역량은 인지적 측면이고, 이는 WEF에서 발표한 복잡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인지적 유연성 등과 관련이 있다.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 특성으로 주목받는 6대 핵심역량 중 감성적 측면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 WEF에서는 감성 지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6대 핵심역량 중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WEF에서는 사람 관리, 협업 능력, 의사 결정력, 서비스 정신, 협상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은 인지적, 감성적, 사회 정서적 역량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역량의 적정성 논란보다는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활동이 학습자 중심 경험 설계에 맞출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학습자(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확산과 학습분석 기술 적용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배움의 주체는 학습자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학습자에게 있다고 볼 때 학습자가 참여하는 활동 중심, 경험을 맥락화하는 수업을 지향하는 것은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를 교육과정 운영 관점에서 보면 목표에 기반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 전략과 과정중심평가의 일체화이다. 수업 전략 측면에서는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거꾸로 학습, 하브루타 등 학습자 활동 중심의 전략 적용이고, 평가는 굳이 별도의 절차를 둘 필요도 없이 과정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배움 경험은 지식의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호기심, 감정이 입, 끈기, 투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감성, 타인에 대한 인식부터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 정서적 측면까지 포괄하게 된다. 다만, 다수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질문과 토의토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났는가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학습자마다 관심과 경험의 수준이 다르고, 표현할 기초 지식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개별학습자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수준을 진단하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 기술이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분석학으로 발전되고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교과 간의 융합을 넘어서
학습자의 경험과 환경이
연계된 학습 활동으로
SW 교육과 메이커교육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약력 김 진 숙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기획실장·수석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공학 학·석·박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사의위원·미래교육자문단
- 한국교육학회 이사 및 정보화위원장
- 한국교육공학회 및 스마트교육학회 이사

학습 경험과 환경이 연계된 'SW 교육'과 '메이커 교육'의 융합 시도

SW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와 수업 시수 확보 측면에서 주목 받았던 영역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의 대단원을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여 5~6학년 군(群)에서 17시간 내외로 학습한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였던 '정보' 과목을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군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켜 34시간 내외로 학습하고, 고등학교는 진로와 연계된 심화 선택 과목에서 '정보'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34시간 내외로 학습한다. SW 교육의 본격 실시에 앞서 전담 교사의 확보나 일반 교사의 역량 연수, 학교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이 올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SW 교육이 컴퓨팅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문제해결 절차를 중시하고, 궁극적으로 컴퓨팅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경험 중심 학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장의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프로그래밍, 코딩 등의 기능 위주 수업 방식과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한 해였다.

메이커 교육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손(Hands)이나 도구를 활용하는 경험 중심 학습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머리로 상상 하던 것을 실제 구현해 보는 활동 중심 수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교육 경험이 융합된 공간으로 체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는 단위 학교에 학습 환경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성하여 SW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추세이며, 결국 교과 간의 융합을 넘어 학습자의 경험과 환경이 연계된 학습자 중심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성 확대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거나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의미 있는 것은 적어도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권한을 갖고,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기도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온전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에 대한 사전 경험 차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현재 '자유학기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학생들이 지필 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과 장래 진로에 대한 탐색·설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폭넓은 활동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비교적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고 환영을 받는 상황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❶

2018년 선생님들이 선택한 티처몰 교구 Top 5



1위



참쌤스쿨과 함께 현수막 환경 꾸미기

금손 선생님들의 모임인 참쌤스쿨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현수막 환경 꾸미기. 주문하고 붙이기만 하면 끝!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준 환경미화 핫 아이템 중 하나이다. 색다른 교실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 현수막 하나로 충분하다.

2위



창의력을 길러주는 코딩 교육용 로봇 햄스터 Hamster

이름만큼이나 귀여운 코딩 로봇 햄스터. 코딩 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능만 담아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기능은 물론 다양한 확장성과 사용자의 개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구매 만족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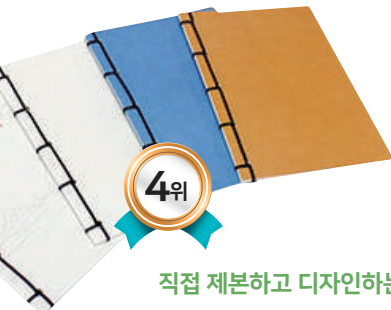
3위



설레는 수업의 시작 세상을 연결하는 지리 지리 이미지 카드

학생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가고도록 하는 융합 교구. 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상상력까지 키워주는 이 교구를 활용하면 수업이 게임처럼 즐거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4위



직접 제본하고 디자인하는 제이커스 DIY 전통제본 노트 만들기

전통제본 방식을 간소화해 만든 DIY 상품이다. 독서기록장, 수업 노트, 모둠 일기 등 활용도는 무궁무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도 키우고, 내가 직접 만든 노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까지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위



수익금 전액 기부 종이 평화의 소녀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제작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자. 소녀상 수익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액 기부된다.

2018년 가장 사랑받은 티처빌 연수 Top 5



수박 먹고 대학 간다

2학점

대학별 전형유형을 분석하고, 모집단위별 합격자 성적을 수록하고, 대학별 입시 전략을 1500페이지에 방대하고 세세한 내용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경이로운데,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시니 어떠한 말로도 그 노력과 열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gam****)

2위



안전교육 필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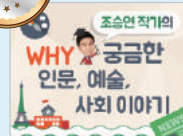
1학점

사실 교직에 몸담으면서 안전교육은 항상 받아오는 것이기에, 충분히 안다고 자신했던 부분이고, 그 때문에

타성에 젖어 듣게 되는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늘 그렇듯 심폐소생술과 응급상황 대처법이 전부일 것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안전교육 필수 가이드를 듣는 과정에서 저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송**(myh*****)

3위



조승연 작가의 WHY 궁금한 인문, 예술, 사회 이야기

2학점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몰랐던 인문, 예술, 사회 분야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무릎을 치게 되었다. 언어의 미술사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았다. 어떤 단어의 어원에 대하여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줄줄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smi*****)

4위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2학점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애뜻함을 느낌과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이었습시다. 한 아이의 이야기가 모두 들어 있는 그림 한 장. 그 그림 한 장이 아이의 가정환경부터 주변의 스트레스 등 그리고 성격까지 이해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cho****)

5위



위기탈출 넘버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안전 교육

2학점

나의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로 인하여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제자, 동료들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듯한 일인가?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응급조치 및 안전을 위한 대비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lee**)

2019

교육 트렌드 전망과
티처빌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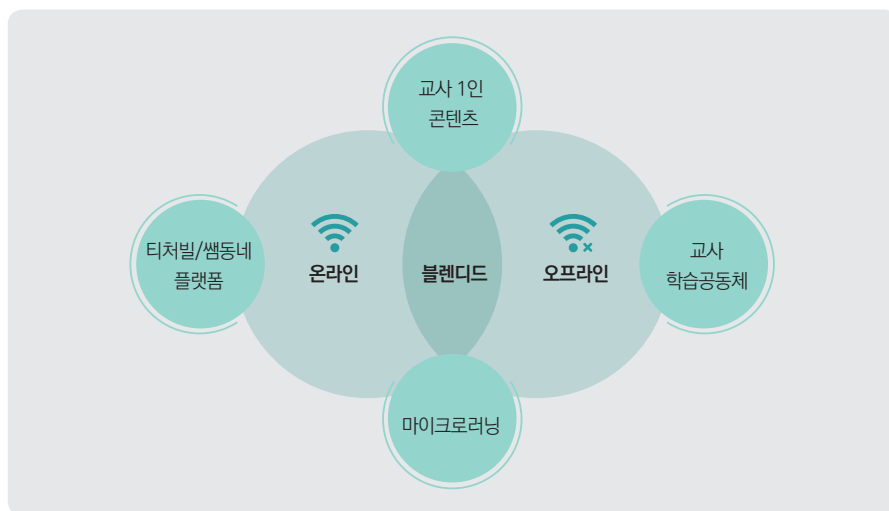
미래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글. 김지혜 티처빌사업부문 이사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미래의 교육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더욱 진화할 것이고, 모바일 소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이크로러닝과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생성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학습자 중심, 미래 학습자 역량, 미래학교에서의 교사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9년 교육 분야 트렌드를 전망해보고, 이에 발맞춰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티처빌의 계획을 소개한다.





티처빌 쌤동네의 원스톱 서비스 운영방식.

학교자치 교사 개인에서 교사 공동체로의 이동 '교사학습공동체' 강화

2019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은 결국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자치 관련 교육정책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경기도 교육청도 2019년 교육정책의 첫 시작을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학교 자치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에 걸쳐 모두 적용된 2018년의 핵심 키워드가 '학생 중심 수업'이었다면, 2019년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공동체의 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과 지역사회를 말한다. 학교자치는 교육과정 자치로 이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의 전문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고립된 단위 학급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학급별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함께 편성 운영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학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교원의 공동체적인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교과별 모임부터 최근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하는 지역·학교급별 교사 전문학습공동체와 함께 참쌤스쿨, 몽당분필, 스텝 매직, 아꿈선 등 교사들의 관심과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학습공동체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있다.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이 결합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 티처빌의 쌤동네는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손쉽게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픈했다. 학습공동체의 모임 개설부터 홍보 및 모임 지원 그리고 신청자를 위한 모임 신청, 결제와 정산 그리고 신청 취소와 환불까지 신청자를 한눈에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급별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주제에 맞는 티처빌의 연수 강사나 쌤동네의 활동 채널들을 강사로 섭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형 학습에서 비정형 학습으로의 변화 '마이크로러닝'을 위한 준비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서비스로 모바일과 함께 IoT(Internet of Things)로 모든 서비스가 연결되어 가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가 짧고 빠르게 생성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의 현장과 교육이 연결되어 이러닝과 같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HR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인적자원개발협회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ATD)에서 2018 가장 중요한 Keyword로 마이크로러닝을 제시했다. 학습과 교육현장이 분리된 기존의 이러닝 교육이 아닌 JIT(Just In Time) Learning으로 학습과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시 학습 측면에서 마이크로러닝은 의미가 있다. 마이크로러닝은 집합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플립러닝도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 학습과정에서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한 학습 설계는 집합연수의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티처빌에서는 교사들의 학습을 교육현장과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1학점, 2학점 구조의 정형화된 이러닝 학습과 함께 20~25분 내의 각 차시 단위별 선생님들이 필요한 내용만 원할 때마다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차시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각 콘텐츠의 내용을 5~10분 단위로 분절해 보다 세분화된 마이크로러닝 '짧강연수'를 선생님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

유튜브로 검색하면 10대,
포털로 검색하면 30대라는
말이 있다.

”



마이크로러닝의 '유튜브'

교사 1인 콘텐츠 지원 나선 '쌤동네'

마이크로러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꼽을 수 있다. 유튜브의 영상은 3~19분 내외로 짧고 빠르게 본문만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 전체 그림에서 목차 순서대로 학습을 하였다면 유튜브는 필요한 콘텐츠를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검색 기반이다. 유튜브 러닝 콘텐츠의 시청 빈도는 주 평균 3.6회로 이틀에 한 번꼴로 러닝 콘텐츠를 시청한다. 러닝 콘텐츠 만족도는 원하는 시간에 시청 가능하다는 답변이 71.4%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의견이 38.7%로 많다.(유튜브에서 공부한다...“이틀에 하루, 러닝 콘텐츠 시청”, 아시아경제, 2018.11.05) 유튜브로 검색하면 10대, 포털로 검색하면 30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0대가 사용하는 앱 1위는 단연 유튜브이다.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을 비롯하여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나누고 공유한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 또한 유튜브를 활용하고 크리에이터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 실제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지난 8월 '유튜브로 가르친다, 유 선생님'을 주제로 교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발적 학습공동체들이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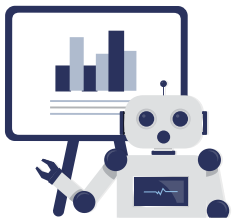
티처빌도 교사의 1인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공유 플랫폼 '쌤동네'를 운영하며 교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쌤동네에는 교사들이 직접 만든 5,232개의 콘텐츠가 있으며, 매일 새로운 교사들의 1인 콘텐츠가 올라온다. 현재 교사 큐레이터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유튜브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파도 속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9년 티처빌은 미래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교사의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러닝, 교사 1인 콘텐츠 및 오프라인 모임 지원 등의 교사 중심 교육서비스를 통해 학교의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써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

원격교육연수원 최초

첫 클릭을 하는 순간부터 추천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티처빌’

글. 김주는 마케팅사업부 선임



세계 부동의 1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닷컴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내세운 인물로 손꼽힌다. 아마존은 철저하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객의 흐름과 니즈를 읽어 간편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유통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테크빌교육도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인 ‘티처빌’에서 고객들이 최적의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학습을 도와줄 계획이다. 변화를 넘어 새롭게 진화하는 ‘티처빌’ 플랫폼의 비전을 살펴보자.

티처빌, 빅데이터 분석 통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 추천

‘티처빌’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선생님 개개인의 관심사와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개인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인별 클릭, 구매 이력 분석을 통한 관심 연수와 함께 동일한 학교급, 소속 교육청, 담당 교과, 연령대의 동료 선생님에게 인기 있는 연수를 추천한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상품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연관 상품과 함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상품을 추천한다.

“

4천 3백만 건의 데이터 기반
관심사와 역량 개발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한다!

”



‘티처빌’의 추천 서비스는 티처빌 사이트에 방문하신 선생님의 클릭, 장바구니 담기, 구매 이력 분석을 통해 해당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연수·도서·교구 등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학교급, 소속 교육청, 담당 교과, 연령대가 비슷한 선생님들이 자주 구매하는 인기 콘텐츠를 선정해 동료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티처빌을 방문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화 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최소한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 개발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콘텐츠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생애주기별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

티처빌은 앞으로 개인화 서비스 기반의 맞춤 혜택을 교사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단계별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54만 명의 회원이 매일 쏟아내는 4천 3백만 건(2002년 이후 누적)의 데이터와 티처빌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관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함께 티처빌 고객의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 기반의 1:1 개인화 마케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T**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테크빌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생각한다.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하며,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에게 최상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사람을 키운다.

“기업의 미래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토대로 구성원에게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바꾼다.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에듀테크 프런티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학부모교육 고민이세요?



티처빌이 만든 부모교육 전문 브랜드



변화된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는 부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진로, 학습,
소통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부모수업



만족도 95점이상
분야별
전문가 파견



학교별 맞춤
학부모아카데미
커리큘럼 제공



학교, 교육청 단위
학부모 온라인
단체연수 운영



NAVER

부모공감



☎ 교육문의 1522-8052



부모공감바로가기



유튜브로 교육격차 해소를 꿈꾸다 아꿈선!

글. 한도윤 전남 현경초등학교 선생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들어갔다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은 초등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초등교사 연구회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섬 지역의 학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초등교사들이 제자들을 위해 직접 과학실험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는 교육 나눔 단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교육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갈수록 커지는 교육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학습 방법을 모르거나 학습 자료가 없어 학습에 흥미를 잃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환경적, 물리적 인프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학원 석사 시절 만난 동기 4명과 뜻을 모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제작한 학습콘텐츠를 공



유튜브 활용 수업으로 과학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아이들, 수업의 주인이 되다!

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아꿈선 초등 3분 과학' 채널에 3~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실험 콘텐츠를 300개 정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과학 수업 아이들의 지식이 과학자의 지식으로 변화되다

유튜브를 활용한 과학 수업은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한글은 몰라도 '도티'와 '캐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궁금증은 네이버, 구글링보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검색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과학 학습의 진행은 첫 번째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손쉽게 학습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과학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한 과학실험 내용을 유튜브 '아꿈선 채널'에서 검색해 관련 차시를 학급 밴드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 배울 내용을 학습하고 학교에 옵니다. 수업시간에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실험재료를 찾아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합니다. 교사는 실험과정과 주의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실험 과정 및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



아꿈선 선생님들이 배움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결과에 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머릿속에 있던 지식을 스스로 실험하고 탐구하면서 과학적 지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학생들은 지식의 생산자로 학습의 주인이 됩니다.

아꿈선의 꿈!!!

그리고 유튜버가 되고 싶은 교사들에게 전하는 말

아꿈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번역해 학습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 등 배움에 목말라 있는 해외 여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유튜브를 통해 국경 없는 교사회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육에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다면 부정적인 콘텐츠로 신음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플랫폼으로써의 유튜브의 무한한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저희 아꿈선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T**

“

아꿈선의 목표는 명확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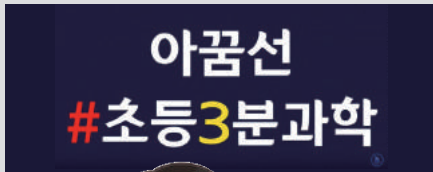


샘동네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선생님들~!



YouTube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의 초등 3분 과학 실험 영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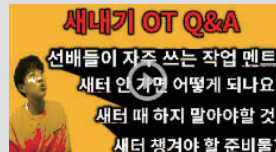


샘동네
채널에서 아꿈선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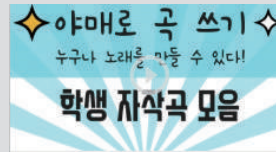
YouTube

유쾌한 교육소통 몽당 분필



YouTube

박대현의 콘텐츠 공장



YouTube

황제샘의 슬기로운 초등생활



2018 티처몰 x 코리아보드게임즈 교육용 보드게임 공모전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보드게임

글. 유소연 티처몰사업부 책임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많은 선생님의 관심을 모았던 티처몰 x 코리아 보드게임즈 교육용 보드게임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출해주신 수많은 아이디어 중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4명의 상품기획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 대상을 받은 국어 보드게임 “품사 칠래말래”는 12월 티처몰 단독 상품으로 출시된다.



품사 칠래말래

제주 오현고등학교 정현주 선생님

쉬운 듯 어려운 국어 교과, 보드게임으로 예습 복습

자연스럽게 쓰는 우리말이지만 교과로 배우면 매우 까다롭다. 정현주 선생님은 교과 내용 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품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익힐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들과 시행착오 끝에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방법을 개발했다. 모둠끼리 수업내용을 게임으로 복습해보면 원활한 교우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품사의 개념과 특징을 배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다.

간단한 게임 방법으로 사고력을 키운다

자음 카드, 품사 카드, 음절 카드를 동시에 뒤집고 카드에 적힌 조건에 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 품사의 개념과 특징을 생각하고 알맞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등 사고력이 필요한 문법 게임이다.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단어들이 갖고 있는 품사의 특징을 순발력 게임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실제 맥락에서 문법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종을 치세요!

“품사 칠래말래” 게임 방법



게임 준비

모듬원은 4명이 적당하다. 모든 자음이 들어 있는 '자음 카드', 9품사가 각각 적혀 있는 '품사 카드', 단어의 길이가 표시된 '음절 카드'를 준비한다. 3명의 모듬원은 카드를 맡아 뒤집는 역할을 하고 1명은 점수를 기록한다.

게임 시작

1.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자음 카드, 품사 카드, 음절 카드를 뒤집는다.
2. 펼쳐진 카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가 생각나면 먼저 종을 치고 답을 외칩니다. 이때 자음은 초성, 종성 중 어느 위치이든 상관없으며 음절의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예1) ㄱ, 명사, 1음절 → “강”
예2) ㅛ, 수사, 2음절 → “여섯”
예3) ㅎ, 형용사, 3음절 → “커다랗다”
3.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단어를 외치면 득점 +1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단어이면 -1
4.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최우수상

돌려 돌려 길을 찾아라

파주 자유초 김혜진, 임진초 조영석 선생님

초등수학을 재미있게!

0도, 90도, 180도, 270도가 쓰여 있는 각도 돌림판을 돌려 각자 가지고 있는 길 카드를 각도에 맞게 돌려 길을 만든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길이 끊기지 않고 먼저 이어지게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위해 늘 연구하는 김혜진, 조영석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집약된 이 게임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각도, 평면도형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보드게임을 하면서 익힐 수 있다. 길이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사고하면서 각도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임이다.

최우수상

탐빙고

인천 주안초등학교 이지민 선생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수학 보드게임

교육 현장에 더 가까운 교구의 필요성을 느낀 이지민 선생님은 영재반 수업경험을 살려 수학의 도형 단원을 활용한 보드게임을 기획했다.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문제를 이해하고 블록의 개수, 찬스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조건 및 정보를 탐색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몇 수 앞을 생각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찬스 카드 활용이 게임의 변수

게임은 블록을 쌓거나, 옮기거나, 찬스 카드를 사용하는 세 가지 행동의 조합으로 진행된다. 1라운드에서는 단순하지만,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행동 하나가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같은 높이의 탑으로 빙고를 만들어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이 게임의 목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창의 융합능력이 향상되는 게임이다.

우수상

골목놀이 여행

창녕 창녕유치원 이현주, 정윤정 선생님

스마트폰 말고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 활동

선행학습과 환경오염으로 친구와 얼굴을 맞대며 할 수 있는 놀이활동이 적어진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상품을 기획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골목에서 즐겼던 놀이 중 보드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골라 7종 골목놀이 보드게임이 만들어졌다. 달팽이, 빠다귀, 따별치기, 우리 집에 왜 왔니, 공숨기기, 대문놀이, 신발던지기 놀이를 통해 스스로 친구와 협력하고 배려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키움으로써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

수업 공동체를 통해 교사는 성장한다

글.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대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워가는 교실 밖 수업공동체

1992년 교직에 처음 나왔을 때, 수업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교회 교사 등의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내가 사용한 단어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이때 우연히 학교 밖 수업 공동체 모임에 연결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교육과정 재구성과 공동 수업디자인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선배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새내기 교사로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수업의 기초를 배워나갔다.

1997년 협동 학습을 접하게 되고, 1998년 학교 안에서 희망 교사를 모집하여 협동 학습을 연구하는 수업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책을 읽고 수업 모형을 직접 수업에서 활용하고 나서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60여 명 교사 중 15명 정도가 꾸준히 모였다. 1999년도에는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립학교이다 보니 핵심 멤버들이 전근을 가면서 모임도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되었다. 고민 끝에 2000년 협동학습연구회라는 학교 밖 수업 공동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수업 공동체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및 실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의 방식이라는 것은 수업 공동체에도 해당되었다. 전문성은 열정+시간이다. 열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개인적으로 협동 학습 전문가라고 인정받게 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15년 동안 꾸준히 협동학습연구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볼 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려면 최소 3년은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3년 이상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약력 김 현 섭

- 現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
- 現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대표
- 한국협동학습연구회 대표
- 한국협동학습센터 소장
-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
- (사)좋은교사운동 좋은학교만들기 위원장
-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수업코치
- 동두천·양주,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주관 헤드코치

[저서]

- 「수업공동체」 (2018)
- 「철학이 살아있는 수업기술」 (2017)
- 「수업성장」 (2016)
-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2015)
- 「수업을 바꾸다」 (2013)
- 「함께 하는 도덕수업」 (2001)





교사학습공동체란?

교사학습공동체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하위 개념으로써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를 말한다. 수업 공동체는 리더십 공유, 가치·비전 철학의 공유, 학생의 학습 강조, 나눔과 공유, 교사 협력, 반성적 대화와 실천, 학습으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특징이다. ①

수업 공동체의 유형과 발달 단계



수업 친구

수업 친구란 수업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교사와 친구를 만들어 상호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두 명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 친구와 멘토링은 개념상 약간 다르다. 멘토링은 숙련 교사가 비숙련 교사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지만, 수업 친구는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업 수다

수업 수다란 수업에 대한 고민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말한다. 대개 수다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업 수다란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업 고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서토론 모임

독서 토론 모임은 수업과 관련한 책을 다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모임이다. 책을 통해 자기 수업 고민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나눈다.



수업 나눔

수업 나눔은 자기 수업을 직접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업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한다. 수업 나눔의 핵심은 수업자의 수업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수평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업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다.



공동 수업 디자인 모임

공동 수업디자인 모임은 수업하기 전에 동료 교사들이 모여 수업자의 수업 계획안(핵심 질문, 학습지 등)을 중심으로 상호 피드백하여 공동으로 수업디자인을 하는 모임을 말한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모임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모임

수업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범교과적 접근을 하거나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 모임을 하면 좋다. 수업 공동체는 다양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업 친구 → 수업 수다 → 독서토론 모임 → 수업 나눔 → 공동 수업디자인 모임 → 교육과정 재구성 모임 순서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면 좋다.

즐거워학교 인성교육 체험활동 - “넌 어느 별에서 왔니?”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수업

글. 정소희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2년 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끌어내는 ‘학생참여 중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 방식과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학생참여 중심교육’의 지향점이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 진로 교육 집중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인성도 체험으로 배운다

다채로운 활동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인성교육도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성향검사 앱과 페이퍼토이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성향검사 앱은 행동 분석을 통해 사람의 성향을 8가지 캐릭터로 알려주며, 각각의 캐릭터들은 태양계 행성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앱을 이용하여 기본성향을 진단하면 장·단점과 성격 특징 파악은 물론,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학생 중심의 만들기와 토론학습

자신의 성향을 찾았다면,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페이퍼토이로 직접 만들어 볼 차례다. 페이퍼토이에 캐릭터의 특징이 세심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한층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성향별로 그룹을

▼ 성향별 캐릭터 페이퍼토이





1. 인성교육 체험활동 진행 순서.
2.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성향 비교표.
3.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학생 작품.

형성하고 주어진 주제에 관해 토론 활동을 진행한다. 토론을 통해 상호 간의 존경심, 협동심, 의사소통 역량과 갈등관리 역량 등 인성역량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으며, 틀림이 아닌 다름을 깨달을 수 있다.

경험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

인성교육 체험활동은 여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의 캐릭터를 알아보면서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었다.”, “성향검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성향 캐릭터를 만들어서 매우 즐거웠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소감을 밝혔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의 사자성어처럼 경험을 통한 배움은 단순 정보전달식 교육과는 또 다른 깨달음을 준다. 배움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면 더 이상 학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신나고 유쾌한 활동이 될 것이다. ㉠

○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인성교육 체험활동은 공교육 기반의 비교과 학생교육서비스 플랫폼 즐거운학교와 센스아이(주)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향(캐릭터) 페이퍼토이를 활용해 맞춤형 인성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즐거운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문의

정소희 선임 school@teacherville.co.kr
070-8282-0140

삶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풍성하게!

글. 최선경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어 선생님



이런 수업이에요!

- 영어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사용 기회를 주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실제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은 프로젝트 수업.
-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안하는 수업.

수업 의도

영어과에서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실제(authentic)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고 동기 부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영어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정을 고민하던 중 대구에 사는 외국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기를 생각해 냈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구 거주 외국인들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공감, 지식정보처리역량, 자기관리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영어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영어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비단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어느 교과에서든 시도해볼 만한 수업이고 학년 단위에서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해도 좋을 주제라고 생각되었다.

수업 흐름

프로젝트 주제 제시 및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정해서 인터뷰 질문지 작성 → 실제로 외국인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알릴 수 있는 자료 만들기 → 공감 캠페인 → 공감 캠페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 → 외국인들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 공유 → 성찰일지 작성 및 공유하기 단계로 진행.



약력 최선경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어 교사
- 대구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 연구회 회장
- 쌤동네 중등 자문 위원
- 「체인지메이커 교육」 저자
-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역자

학생 수업 소감

-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알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문제점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어렵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쉽고 재미있고 활동적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과목도 공부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대화해보니 생각보다 쉽고 무섭지 않았다.
-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정확한 발음도 알게 되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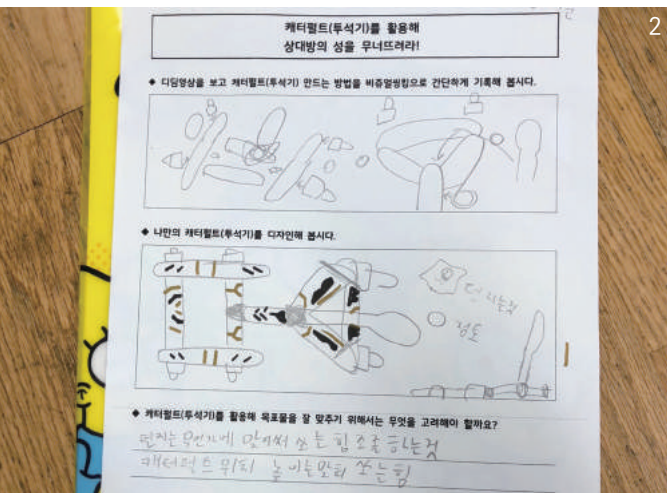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이란?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기회를 얻거나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고 직접 행동에 옮겨보는 수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이며 학생들이 공감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체인지메이커 교육> 도서를 참조하세요.



1



2

1. 사전활동지에 작성한 아이디어를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수정·보완하는 학생들.
2. 스스로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전활동지.

메이커 교육, 수업 시간을 디자인하다

글. 전상현 화순 아산초등학교 선생님

메이커 교육이란 단어는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종이를 접어서 배를 만드는 것, 지점토로 사람을 만드는 것도 모두 메이커 교육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많은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캐터펄트를 활용한 사회·미술 교과연계 메이커 수업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전투는 가장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과거의 전투는 성을 무너트리는 것이 중요해 성을 무너트릴 수 있는 캐터펄트(투석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인시성'에서 당나라 부대가 '인시성'을 공격하고, 영화 '황산벌'과 '평양성' 전투에서도 캐터펄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전투에 사용된 캐터펄트를 사회수업과 미술수업 시간에 만들고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흥미를 더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 캐터펄트를 활용한 교과연계 메이커 수업 활동 모습.

수업 전 캐터펄트 제작 동영상 시청과 사전활동지 준비

메이커 수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아이들이 메이킹 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가 낮은 부분입니다. 수업을 통한 학습 목표를 높이기 위하여 수업 전에 캐터펄트 제작 동영상과 자신만의 캐터펄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사전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캐터펄트에 대한 고민을 활동지에 기록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캐터펄트를 만드는 활동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작한 캐터펄트는 쌀기 나무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도구들을 활용해 성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활동으로 아이들의 경쟁심과 흥미를 높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각도, 길이, 날아가는 물체의 무게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캐터펄트의 성능을 개선해 나갑니다. 각 모듈은 물체를 발사할 수 있는 다섯 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캐터펄트의 정확성에 따라 쌀기 나무 위에 올려놓은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가 달라집니다. 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또 다른 쪽에서는 아쉬움의 탄식이 들립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과 짧은 글짓기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캐터펄트는 000이다.' 아이들은 000에 들어갈 내용을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메이커 교육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만들기가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캐터펄트를 통한 교과연계 메이커 수업은 사회 교과서의 삼국시대 전쟁 이야기로 수업을 도입하고 물체를 쏘아 올리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인 각도, 길이, 무게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과연계를 통한 메이커 교육으로 재미를 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전활동지, 다양한 재료를 통한 만들기 활동, 수업을 마친 후 자신들이 느낀 점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모델이 적용된 교과연계 메이커 KIT가 테크빌 교육에서 1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를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선생님들이 교과연계 기반의 메이커 교육을 교실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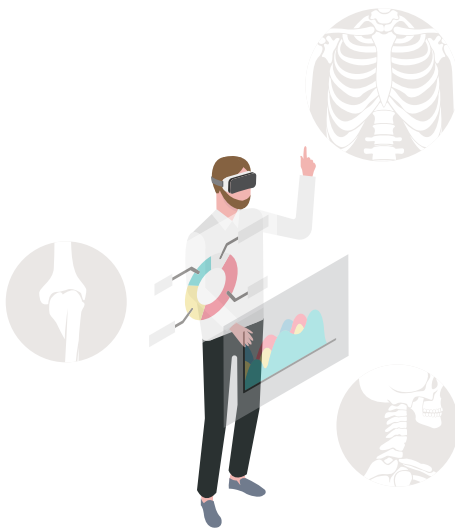


약력 전상현

- (현) 전남 화순아산초 교사
- 정보과학 인재양성 우수교사
- 사회과 수업 선도교사
- 개정교육과정 교과용도서활용 연수강사
- 교육부지정 농산어촌ICT 연구회 회장
- 초등 e-러닝 우수교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

글. 이용일 VR사업부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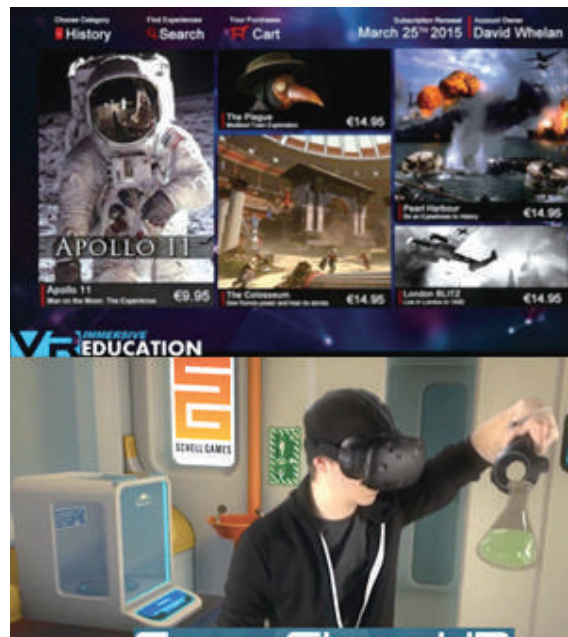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많이 확산하였고, 그 주제도 다양해졌다. “Google Expedition”, Immersive VR Education에서 출시한 “Apollo 11 VR Experience” 등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체험하기 어려운 공간을 탐사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테크빌교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이란 주제로 선정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테크빌교육에서는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각 교육 내용에 맞게 보완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은 기존 교과서나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인체를 가상현실 기반으로 자세히 보거나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인체해부학은 계통별[뼈대·근육·호흡·비뇨·소화·내분비·(남 녀)생식]로 분류하여 각기 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인체의 7대 장기인 뇌·심장·위·간·폐·대장·직장에 대해서는 질병에 따른 변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에 따른 변이의 경우 변이된 모습을 현미경이나 특수장비 등을 활용해야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 콘텐츠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Google Expedition



Immersive VR Education



뼈대계통



근육계통



호흡계통



비뇨계통



소화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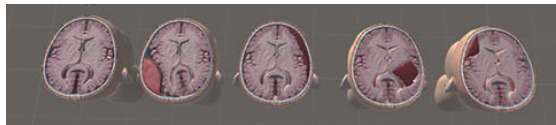
내분비계통



생식계통(남)



생식계통(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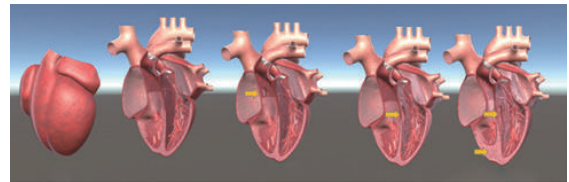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정상 간 간섬유화 간경변 간암



정상 폐 결절형성단계 공동형성단계



심장 앞면 정상 심장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활씨4중후군



정상 대장 대장암 1기 대장암 2기 대장암 3기 대장암 4기



정상 위 용기형 표면용기형 표면함몰형 궤양형

이번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과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으나, 세부적인 표현이 미흡하고 그래픽 품질이 낮으며 해외에서 개발한 사례가 전부여서 기존 제공되는 교과서나 모형보다 높은 품질의 그래픽을 표현하였고, 국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테크빌교육은 삼육보건대학에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체해부학' 교육 시스템을 납품하였다. 삼육보건대학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간호학과·피부과·의료정보학과 등에서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육보건대학 NCS 센터장인 주현재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는 VR을 활용한 교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습과목에 활용됐을 때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학습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이 있을 때, VR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개혁을 대학에서 풀어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VR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크빌교육은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과정을 기획·개발 중이다. ㉮



다시 승천하는 중국의 미래를 엿보다

글. 김경원 융합교육사업부 책임 / 이학박사

지난 10월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 행사인 '메이커 페어 심천 2018' 현장에 다녀왔다. 이번 메이커 페어는 세계 5대 항구 중 하나인 심천항 근처 'The Sea World Culture and Arts Center'에서 열렸다. 올해는 1978년 12월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여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국제 행사였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다수 참여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메이커 페어 행사장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부스와 체험공간으로 가득했고, 실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메이커 페어가 열리는 첫날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몰려 부스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입구 근처에 출전업체와 작품을 안내하는 대형 안내판이 먼저 보였다. 이번 메이커 페어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포럼, 워크숍 등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많았다. 특이한 점은 심천 시내 자체가 거대한 메이커 공간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듯하다.

이번 메이커 페어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MCU)'를 활용한 전자 작품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작품들이 꽤 많았다.

전시에는 단순 취미를 넘어 현실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작품들과 메이커 교육을 위한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마이크로비트 교재



현실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아두이노 및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작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프로그래밍하면 음정 및 박자에 맞춰 각 액추에이터가 음악을 협주한다. 단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생(生)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합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였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세공한 액세서리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세공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부스도 있었다. 보통 3D 프린터로 액세서리를 만든다면 그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여타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실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문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액세서리 세공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손으로 작동시키는 통돌이 세탁기

‘Human Tech LAB’란 곳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중 하나가 두 개의 끈을 이용한 통돌이 세탁기이다. 야외에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었다.

다양한 메이커 교육 교구



오토마타

여러 작품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단연 오토마타였다. 다양한 형상들이 진열된 모습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오토마타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패키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패키지는 여러 회사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교구들은 다른 해외 제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 또한 다양하여 교육용으로 적합하다 판단된다.

교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교구의 사용 방법을 아이들 수준으로 개선한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교구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제품의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교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교재까지 잘 정리하여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비트’ 또는 ‘대시앤닷’과 같은 해외 제품의 중국 현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커 페어 심천 2018은 중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은 40년 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로 어느덧 세계를 리드하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의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선진화된 테크놀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였다. **T**



휴식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글. 윤민영 티처빌연수사업부 선임





[마음톡톡 : 세상사는 이야기, 헤민 스님을 만나다] 연수를 통해 많은 교사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 멘토 헤민 스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났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쳐있는 분들에게 스님은 짧은 휴식을 권면했다. 건 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추는 것이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임을 말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Q. 헤민 스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간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집필 작업으로 바빴어요. 책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니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되네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치유학교를 지난 10월 부산에도 개원했는데, 운영 초기라 아직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네요.

Q. 마음치유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마음치유학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한 자리에서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현대인들의 어두운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치유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미술 치유나 음악치유 같은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춤이나 요가와 같이 몸을 먼저 다루기도 합니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그룹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수채화 클래스는 벌써 몇 번이나 전시회를 했고, 합창 치유 클래스도 발표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따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있죠.

Q. 열심히 달려온 2018년! 무기력이 찾아온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온전히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자기 본연지성의 선한 기질이 나와요. 쉬지 못하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모든 일에 쉽게 힘들어지거든요. 휴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권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여행, 산사체험, 기도원 등 무엇이든 삶의 패턴을 잠시 바꿔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강릉이나 부산에 가서 바다를 한 번 보고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1시간씩 일찍 잠들기, 매일 운동하기, 좋은 음식 먹기, 수면 시간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우울해질 확률이 증가하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자기 전 목욕 후 독서를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몸의 에너지 수치를 높여보세요. 일상에서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 어렵



다면, 출근할 때 도착 장소보다 세 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걷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걸으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저는 마음치유학교의 방향성이라든가, 책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걸으면서 얻습니다.

Q. 풍요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기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보세요. 저도 모임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40대 스님들의 모임, 73년 소띠들의 모임,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의 모임(일명 무모한 형제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40대 스님들 모임에 가면 큰 절을 운영하는 스님의 고충을 듣기도 하고, 종당 안에서 일하는 스님을 통해서도 종당 안에서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듣기도 합니다. 73년 소띠들의 모임에는 전 야구선수 박찬호 씨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운동경기 보는 것을 즐기지 않지만, 박찬호 씨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옆에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모한 형제들 모임에는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패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이상봉 선생님을 따라 패션쇼를 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 놀라곤 하죠. 하버드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서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친구는 현재 모두 목사님이예요.

저는 주변의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풍요롭다고 여기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 덕분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고, 좋은 책이나 음악을 추천받으면서 인생의 경험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부자로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Q.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올라올 때,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이나 미움 같은 감정들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보통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불안에 빠져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 불안이란 것이 구름처럼 왔구나.'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불안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보내는 겁니다.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계속 좋은 건 없거든요.

무언가와 동일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분쟁,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심하면 폭력이나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자 혹은 여자이다, 나는 진보 혹은 보수이다, 내 고향은 어디이다.' 이런 문제에서도 그 어

약력 헤민 스님

- 마음치유학교 교장
- 전 미국 햄프셔대학교 종교학 교수
- 프린스턴대학교 종교학 박사
- 하버드대학교 비교종교학 석사

[연수 소개]

- [2학점] 마음톡톡 : 세상사는 이야기, 헤민 스님을 만나다



[신간 소개]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학생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먼저 행복해지세요.

”



느 것에서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제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한쪽을 더 이해하고 지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상황, 그 입장이었다면 ‘과연 내 선택은 저 사람과 달랐을까?’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Q. 스님의 2019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마음 수업’ 앱을 개발 계획 중입니다. 지방에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마음치유학교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 생활 속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불안감을 다스리거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앱이라는 통로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잘 완성해내는 것이 제 2019년 목표예요. 또 한 가지는 신간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예요. 삶에 고요함이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반응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이죠.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다스리며 삶의 방향과 가치를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Q.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께 드리는 응원 메시지

가르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모로 고충도 많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면 ‘늘 잘해야 해. 나약해지면 안돼.’라는 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스로 병들고 맙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학생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먼저 행복해지세요. 이번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는 더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선생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

과정중심평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꾸다!

글. 유영식 안산 석수초등학교 선생님



과정중심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는 평가 패러다임 변화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고 분류하는 선발적 평가관에서는 과거 결과중심의 평가 방식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비교와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발달적 평가관으로의 변화로 인해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평가가 변화하였습니다.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역할을 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바로 과정중심평가인 것입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을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시험지 형식의 구조화된 선택형·단답형 문항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형성 과정에서 지식이나 기능 등의 형성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역량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수행장면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평가 방식이 과정중심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최근 과정중심평가와 함께 우리 학교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어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의미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정중심평가의 실천이 곧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연결됩니다.

기존 교과서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과정중심평가의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재구성 됩니다. 과정중심평가의 실천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과정 중에 점검하고 피



드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바뀌며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결과로 연결됩니다. 또한, 수업디자인 관점에서도 배움을 확인하는 활동을 염두에 두고 수업이 디자인되어 평가활동이 수업 활동 중 하나가 되어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장면이 기록으로 연결되고 과정중심평가로 인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가 가능합니다.

과정중심평가 이상과 현실

한 지방 교육연수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주제로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과정중심평가는 뜬구름 잡기다.”라는 말을 한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과 만나면서 느낀 공통적인 의견은 과정중심평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반응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고 수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계획과 평가를 정보 공시하는 형식도 바뀌어야 하며, 평가 도구 설계와 채점, 피드백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과정중심평가 예시자료의 경우 성취기준 1개에 여러 번 평가가 이루어지며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채점하도록 개발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중심평가는 채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계적 채점이 과정중심평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실천노하우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중심평가는 기존의 평가 이론에 국한된 학문적인 설명과 극소수 이상적인 실천사례로 현장에 뿌리내리기 힘듭니다. 실제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의 원리가 구현된 현실적 사례들을 발굴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약력 유영식

- 교육부 주관 과정중심 수행평가 및 학생평가 교원연수 강사
- 전국 다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강사(교감자격, 수석교사 등)
- 티처빌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과정중심평가> 원격직무연수 강사
- 즐거운학교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하는 과정중심평가」 저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핀란드’

글. 박지영 티처빌연수사업부 수석

핀란드 관광청 초청으로 “Learning by doing in Finnish Natur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1주일간 핀란드에 다녀왔다.

핀란드에 가기 전 핀란드에 대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다. 오래전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을 본 적이 있다. 영화에는 핀란드에 온 어느 일본 중년 여자가 등장하는데, 숲으로 가서 버섯을 따라는 말을 듣고 가방 가득 버섯을 따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핀란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숲으로 가라고 하는지 궁금했었다. 다른 하나는 핀란드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2017년 국내 핀란드 교육 전문가인 정도상 박사님과 함께 ‘핀란드 교육 바로 알기’ 티처빌 온라인 연수를 촬영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핀란드 학생 2명을 초청하여 핀란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핀란드에는 사교육이 거의 없어 선생님, 학교,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신뢰한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그때 ‘어떻게 핀란드 사람들은 자국의 교육을 저렇게 굳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숲과 호수가 많은 레이크랜드(Lakeland) 지역의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탐방을 비롯한 교육 기관 담당자 미팅, 자연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나. 핀란드는 나무와 숲, 그리고 사우나의 나라다

핀란드에 도착한 후 첫 번째 목적지인 레이크랜드(Lakeland) 코우볼라 (Kouvola) 지역의 '안알라 (Anjala) 청소년 센터'로 가는 3시간 동안 보이는 것은 눈 덮인 침엽수림과 자작나무로 빼곡한 숲 밖에 없었다. 핀란드는 주말이나 여름 한 달 정도는 숲 안에 별장(Cottage)를 만들어 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숲속에서 베리나 버섯을 따고 책을 읽기도 하고 사우나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겨울이어서 베리나 버섯 따기 체험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숲속에 위치한 '안알라 (Anjala) 청소년 센터'에 마련된 핀란드 전통 사우나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사우나 안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에 물을 뿌리니 뜨거운 증기가 사우나 안을 가득 메웠고, 핀란드의 매서운 추위에 얼어 버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 했다. 핀란드에는 약 300만 개 정도의 사우나가 있다고 하니, 핀란드 인구 두 명당 한 개의 사우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둘. 핀란드의 수업은 학생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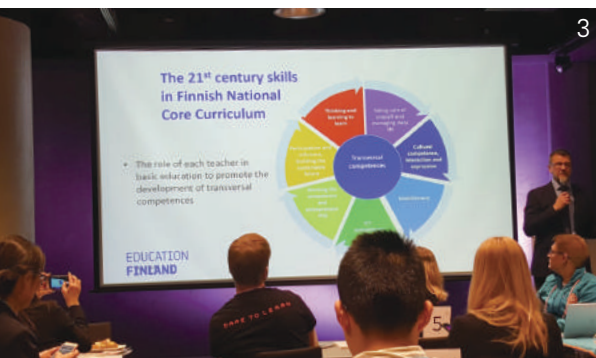
핀란드 방문 기간 중에 라페란타 기술대학교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LUT) 부속 초등학교, 요엔수 지역 고등학교 (Joensuu yhteiskoulu highschool), 초·중·고가 함께 있는 오토쿠푸(Outokumpu) 종합학교와 두 개의 대학 (LUT,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LUT 부속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시간을 참관했는데, 수업 시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짝과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다. 나중에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미션 수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자물쇠가 달린 2개의 검은 상자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상자를 여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숲속 '안알라 (Anjala) 청소년 센터'
- 2,3. 라페란타 기술대학교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LUT) 부속 초등학교 수업





헬싱키에서 들르던 좋은 장소를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스톡만(Stockmann) 백화점 안에 위치한 서점을 추천한다. 핀란드는 건축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데, 이 서점에 가면 천장에 달린 독특한 모양의 창문을 볼 수 있으며, 화려한 디자인의 책들을 감각적으로 배치해 놓아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1. 요엔수고등학교(Joensuu yhteiskoulu highschool) 수업
2. 요엔수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한국 대표단
3. 국가교육위원회 기획/대외부장 Lauri Tuomi의 강연
4. 스톡만(Stockmann) 백화점 안에 위치한 서점

나 뵈었는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핀란드 교사는 영구직이 아니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직접 지원해서 승낙을 받아야 교사가 된다. 대부분의 교사교육 트레이닝은 교사들이 직접 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겸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사가 된 이후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대학, 정부기관, 교육 기업과 함께 별도의 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교사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같다.



넷. 핀란드는 해외에 교육을 수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숲 체험, 여름캠프, 대학 교육, 교사교육과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홍보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교육관광 프로그램도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고, 행사 마지막 일정은 헬싱키 래디스 블루 시사이드(Radisson Blu Seaside) 호텔에서 핀란드 교육관광 주관으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핀란드 무역대표부, 교육부, 핀란드 전역에서 모인 총 55개의 교육관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대학이 참가했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기획/대외부장 Lauri Tuomi의 핀란드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6개국에서 모인 각국의 바이어들 간 상담이 이뤄졌다. 교사교육과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다양한 대학, 교육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교육을 상품화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핀란드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핀란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추운 나라 핀란드에서의 교육 관광 일주일 경험은 뜨겁고 강렬했다. 5개의 학교와 7곳의 교육기관을 방문하면서 핀란드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영하 40도의 강추위에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쾌적한, 그러면서도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핀란드의 학교시설은 부러웠다. 학교 안에서 각기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전 가졌던 궁금증인 왜 핀란드 사람들이 숲을 자주 찾게 되는지와 교육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아주경제 (2018. 09. 27)

테크빌교육 ‘티처빌’, 4차산업 대비 ‘메이커교육’ 직무연수 개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은 자사가 운영하는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이하 티처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학교에서의 메이커교육’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메이커교육은 아날로그 메이킹을 비롯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사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이끄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다.

티처빌의 메이커교육 연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이커교육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를 담았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한 사례를 포

함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했던 메이커교육 운영사례들을 학교급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총 15강으로 이뤄진 연수는 메이커교육이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부터 △메이커교육의 개념과 정의 △메이커교육 프로젝트 △메이커교육을 학습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초·중등학교의 메이커교육 사례와 실천 방안으로 구성됐다. 강의에는 메이커교육 전문기업 브레이너리의 정종욱 대표를 비롯 현직 교사 2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송창범 기자

머니S (2018.10.10)

테크빌교육 키즈티처빌-한어총 가정분과, 어린이집 ‘안심보육인증제’ 실시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의 영유아 교사 교육 플랫폼 키즈티처빌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이하 한어총 가정분과)와 어린이집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안심보육인증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키즈티처빌은 최근 통학차량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등 끊임없는 사건사고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대책 차원에서 안심보육인증제를 가정분과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보육인증제는 평소 자율·자정 노력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허역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

수의 안전지도사 오프라인 교육을 어린이집 원장이 이수, 보육교직원 전원이 키즈티처빌의 ‘영유아안전지도사’ 온라인 과정을 각각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집을 인증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간은 1년이며, 테크빌교육 측은 가정어린이집이 매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인귀 기자

조선에듀 (2018.10.15)

테크빌교육 티처빌,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 진행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과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을 시리즈로 진행한다. 티처빌의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 1탄은 배움중심수업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이끌

어갈 선생님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연수를 추천하고, 현직교사의 다양한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이 밖에 관련 도서와 수업 교구 및 프로그램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의 목적부터 수업의 방법까지 지금의 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티처빌은 미래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주체인 선생님의 성장을 통해 배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공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학생 중심의 수업 트렌드를 반영해 △디자인씽킹 △학습대화(질문) 수업 △메이커교육 △비주얼씽킹 △온책읽기 △과정중심평가 등으로 구성했다. 교사는 내달 9일까지 티처빌연수원의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1만원 쿠폰 다운로드 후 티처빌이 추천하는 배움중심수업 직무연수를 신청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움중심수업 소개영상 중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은 영상을 골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선생님 전원에게 티처빌 포인트 1천원이 적립되고,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무료 수강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교육정보팀 기자

서울경제 (2018.10. 23)

[2018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우수상 '테크빌교육(주)'



테크빌교육(주)는 54만 유초중등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SW) 메이커 교육,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테크빌교육(주)는 '개인과 조직이 독서와 토론으로 성장과 꿈을 이룬다'는 독서경영의 비전하에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테크빌교육(주)는 책 읽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 관련 포인트를 필수적으로 채우도록 했다. 기본 50포인트를 수료해야 하며 필수 20포인트는 독서토론-독서경영 그룹 활동(1권당 10포인트), 자율적 독서활동(1권당

1포인트), 독서 노트 게시(1권당 3포인트)로 채워야 한다. 인사평가 제도와 연계해 필수 영역을 미수료하거나 50포인트 미만인 경우 감점된다. 이 같은 엄격한 프로그램 덕분에 지난 2018년 6월 기준 임직원 수가 112명이지만 독서토론 참여 누적 인원 362명, 학점인정 독서 노트 424건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내 도서관, 미니 문고, 사내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관련 사내 세미나 등으로 독서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진 기자

디지털데일리 (2018.11.05)

테크빌교육 ‘쌤동네’, 교사 학습공동체 오프라인 모임 지원



교육기술(에듀테크)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교사 콘텐츠 공유 플랫폼 쌤동네에서 교사들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필요한 전 과정 관리를 원스톱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쌤동네는 지난 9월 교사들의 취미활동 같은 소모임을 비롯해 학교교육 혁신 및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손쉽게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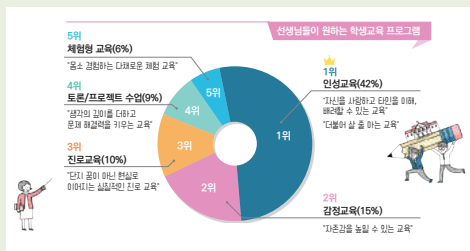
교사라면 누구나 쌤동네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 모임 신청부터 결제와 정산, 참석 취소와 환불까지 신청자를 한 눈에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다. 무료 또는 유료모임 개설이 모두 가능하며 원하는 모임 관련 정보를 에디터에 추가해 모임 콘텐츠를 오픈하면 된다. 쌤동네는 개설된 오프라인 모임을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의 54만명 교원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메일, 블로그, SNS 홍보를 지원하며 모임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이사는 “쌤동네를 통해 오프라인 모임을 개설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

에듀동아 (2018.11.05)

교사가 학생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교육 1위 ‘인성교육’, 방법은?



테크빌교육의 비교과 학생교육서비스 플랫폼 '즐거운학교' 설문조사 진행

교과목 교육을 떠나 학교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의 비교과 학생교육 서비스 플랫폼 '즐거운학교'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학생교육 하고 싶다'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교육은 '인성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빌교육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에는 총 148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여 댓글을 남겼고, 그 중 42%가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학업성취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 상 공부법, 진학컨설팅 등 학습 관련 주제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만큼이나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감정·심리교육이 15%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꿈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10%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9% △몸소 경험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6% 순이었다.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법, 환경교육, 메이커교육, SW 교육, 예방·안전 교육, 책 쓰기, 게임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수진 기자

전자신문 (2018. 11. 20)

[에듀테크 선샤인] VR·방과후 SW교실로 에듀테크 새로운 길 만들겠다

“가상현실(VR)과 소프트웨어(SW) 교육 두 축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부사장은 에듀테크연구소장으로 취임한 후 15년간의 에듀테크 분야를 연구, 기획했다. 이력만으로 성장한 테크빌교육이 에듀테크 회사로 성장하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했다. 박 부사장은 그동안 에듀테크 서비스 기획, 도전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력할 분야를 두 가지로 압축했다. VR과 SW교육이다. 박 부사장은 ‘VR 교육 2.0’ 시대를 강조한다. 박 부사장은 “기존 VR는 교육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VR를 접목해 교육 질을 높이는 VR 교육 2.0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테크빌교육은 VR을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접목한다. 지난해 VR 기반 자동차정비 교육훈련 과제 주계약으로 선정, 한양공고에서 VR 기반 수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에도 VR을 접목했다. 삼육보건대는 테크빌교육이 제공하는 VR 콘텐츠로 해부학 등을 가상으로 실습한다. 박 부사장은 “실습이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VR 활용도가 높다”면서 “한양공고, 삼육보건대 학교와 학생 모두 VR 활용한 교육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테크빌교육은 별도 팀을 만들어 교육별 VR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 VR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제작하기 때문에 교육용 VR 콘텐츠 완성도가 높다.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에듀테크 대표 사례다. 박 부사장은 “VR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제와 100%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VR 교육은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부사장

김지선 기자

머니S (2018. 11. 22)

티처빌,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 2탄 겨울방학 여행편 실시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의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이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 2탄으로 ‘겨울방학, 여행을 떠나요’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는 겨울방학 가슴 뛰는 여행을 통해 힐링이 필요하다는 콘셉트로 티처빌만의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지식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여행에서 낭만, 배움, 맛, 자신감을 더해 줄 티처빌 직무연수부터 떠나기 전 보고가면 좋을 쌤동네의 여행 꿀팁

콘텐츠, 함께 하면 좋을 티처몰 추천 여행용품과 도서까지 다양한 여행지식을 추천한다.

특히 티처빌은 이번 캠페인 2탄에서 연수 시작과 종료료 선생님이 자유롭게 정해서 들을 수 있는 상시연수와 언제든지 원하는 차시만 선택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차시연수를 새롭게 선보였다. 상시연수는 연수원 최초로 티처빌이 선보이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1학점에 한해 최대 3개까지 동시 학습이 가능하며 향후 시범 서비스를 거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이사는 “겨울방학을 한달 앞두고 연수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힐링 컨셉의 여행을 테마로 2탄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감성, 역사·문화, 식도락, 어학을 더한 직무연수와 추천도서 등을 통해 여행의 감동과 재미를 만끽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인귀 기자

필요한 강의만 쓱쓱! 티처빌 차시연수 오픈 마이크로러닝, 그 시작 ‘차시연수’

글. 박예은 티처빌연수사업부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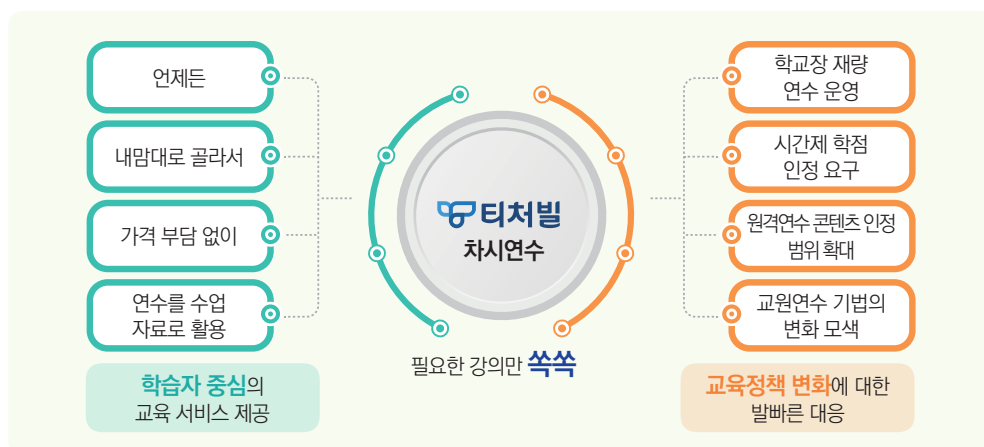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재개발협회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ICE 2018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마이크로러닝이다. 모바일이라는 미디어 환경과 소셜 러닝, 검색 중심의 콘텐츠 소비에 따라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 빠르게 담아 제공하는 마이크로러닝은 교육 콘텐츠에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티처빌연수원은 한 차시의 내용만 원할 때, 해당 차시만 구매하여 학습할 수 있는 ‘차시연수’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차시, 30차시의 과정 전체를 학습해야 했던 기존의 정형화된 직무연수와 달리 ‘차시연수’는 언제든 지원하는 차시만 선택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비정형화된 새로운 교육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상황에 맞도록 설계해 짧은 시간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시연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러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원주교육청은 1년에 6시간 이상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티처빌의 여러 자유학기제 연수 중 원하는 10개 차시를 모듈화하여 단체수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청에서도 차시연수와 비슷한 모듈형 학습형태가 점점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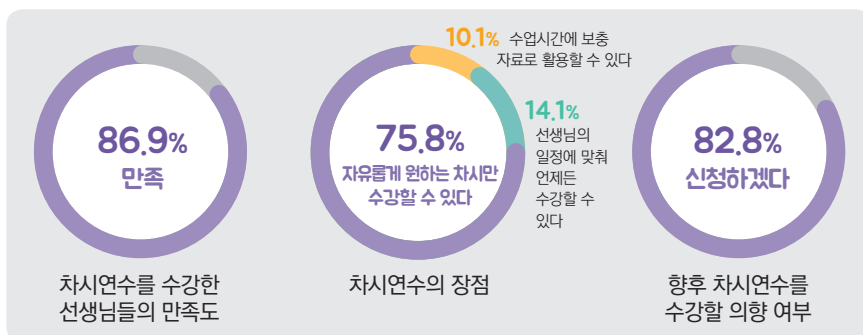
티처빌이 차시연수를 수강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시연수에 대한 선생님들의 선호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차시만 분절하여 내 맘대로 쓱쓱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티처빌의 ‘차시연수’,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활용법을 알아보자. ①



티처빌 ‘차시연수’ 도입 배경

차시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99명 대상



차시연수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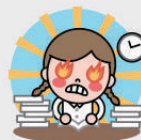
Case 01 재미있게 놀이로 발표해요 수업시작 5분을 잡아라!



수업 시작이



어려울 때



특특튀는 동기유발 전략을



바로 적용!

Case 02 명품미술관, 런던 내셔널갤러리로 가져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나에게 말을 걸다”



여행 준비하다가



막막할 때



정보를 모아모아



떠나자~!

Case 03 쏟아지는 업무 처리, 어떻게? 소금벌의 사소한 IT 이야기



쏟아지는 업무로



힘겨울 때



할 일 관리 노하우를



바로 활용!

Case 04 연말정산 노하우, 이것만 알면 된다 교사의 월급통장을 사수하라!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할 때



전문가의 노하우로



월급통장 사수!



티처빌 차시연수를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원격교육연수원 최초

내 연수는 내 맘대로! 티처빌 '상시연수' 론칭

글. 남아람 티처빌연수사업부 선임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원 최초로 '상시연수' 서비스를 론칭했다. 상시연수는 기수 별 진행되었던 직무연수의 단점을 보완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 동안 연수를 수강하는 원격 직무연수의 한 방식이다. 기존의 직무연수는 학점별(1~4학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한 기수의 시작일을 기다려 연수를 수강하고, 종료일을 기다려 이수증을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상시연수'이다.

구분	상시연수	직무연수
수강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결제 후, 바로 시작!	신청/결제 후, 연수 시작일까지 대기
수강 종료	연수를 모두 수강하면 바로 종료!	연수를 모두 수강해도 정해진 연수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함
이수증 출력	연수 종료 후, 바로 출력!	연수 종료 후, 1일 뒤 출력 (1학점 기준)
NEIS 보고	매주 금요일 NEIS 보고	신청한 기수/차수 종료 후, NEIS 보고

상시연수와 직무연수의 차이점



신규 서비스 '상시연수' 시작부터 관심 높아

티처빌은 그동안 선생님이 연수를 신청한 즉시 수강할 수 없을까? 교육 현장에서 바쁜 선생님들이 여유롭게 연수를 수강할 수 없을까? 선생님이 연수 종료를 결정하게 할 수 없을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새롭게 도입한 상시연수 과정이 오픈 한 달 만에 3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빠르게 수강하고 이수증 출력을 원하시는 선생님, 시간의 제약 없이 여유롭게 수강하고 싶은 선생님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상시연수 서비스는 자기 주도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여 선생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 현재 상시연수 과정은 티처빌연수원에 있는 직무연수 1학점 (48개 과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동 기간 최대 3개까지 동시 학습이 가능하다. 앞으로 티처빌은 상시연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19년부터 2~3학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 연수는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상시연수' 자세한 내용은 티처빌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보자. ①

티처빌 쌤의 BEST 상시연수

안전교육 필수가이드 1학점

신청하기 >

수업, 하나만 바꿔보자! 1학점

신청하기 >

메이커교육 1학점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학교에서의
MAKER EDUC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필수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는 과정중심평가 1학점

교육과정을 리모델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자!

신청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은 행복한 일상 1학점

일상이 더 즐거워지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신청하기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코칭지도법 1학점

신청하기 >

비주얼씽킹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수업 1학점

신청하기 >

영화, 질문하고 답하다 영화인문학 1학점

신청하기 >

캘리(그)라피 1학점

다양한 펜으로 마음을 전하는 손글씨

신청하기 >



티처빌 상시연수를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2019년 티처빌연수원 상반기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 시작일	연수 종료일	출석 고사	이수증 발급
1기	4학점	12월 26일	01월 29일	01월 26일	02월 01일
	3학점	12월 19일	01월 15일	-	01월 17일
		01월 02일	01월 29일		01월 31일
	2학점	12월 26일	01월 15일		01월 17일
		01월 02일	01월 22일		01월 24일
	1학점	12월 26일	01월 08일		01월 09일
		01월 02일	01월 15일		01월 16일
2기	4학점	01월 09일	02월 19일	02월 16일	02월 22일
	3학점	01월 09일	02월 05일	-	02월 07일
		01월 23일	02월 19일		02월 21일
	2학점	01월 09일	01월 29일		01월 31일
		01월 23일	02월 12일		02월 14일
	1학점	01월 09일	01월 22일		01월 23일
		01월 23일	02월 12일		02월 13일
2월 완성	2학점	01월 30일	02월 19일	-	02월 21일
		02월 13일	02월 26일		02월 27일
	1학점	01월 30일	02월 19일		02월 20일
		02월 13일	02월 26일		02월 27일
3기	4학점	03월 13일	04월 23일	04월 20일	04월 26일
	3학점	03월 06일	04월 02일	-	04월 04일
		03월 20일	04월 16일		04월 18일
		04월 03일	04월 30일		05월 02일
	2학점	03월 06일	03월 26일		03월 28일
		03월 20일	04월 09일		04월 11일
		04월 03일	04월 23일		04월 25일
	1학점	03월 06일	03월 19일		03월 20일
		03월 20일	04월 02일		04월 03일
		04월 03일	04월 16일		04월 17일

※출석 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우리의 교육,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학점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폴 김(Paul Kim)

Seeds of Empowerment 대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강의 개요

“교실 속 수업 혁신과 교육 실천의 해답을 찾다”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경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 혁명가 폴 김이 전하는 지구촌 교육 현장과 교육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강의 특징

- 폴 김 교수의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 활동과 사례를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강의.
- 교사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세계시민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실 속 혁신 강의.



강의 개요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융합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의 특징

-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교과별, 주제별, 학년별) 모두 담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
- 최선경 선생님의 프로젝트 수업 경험을 나누고, 교과 분과 형태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 수업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 노하우 제공.



중등 Project Based Learning 실천 가이드

1학점

프로젝트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



최 선 경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어 교사

현직 교사가 들려주는 초등 PBL 실천 레시피

1학점

달리쌤의 달콤한 PBL (달달한 PBL)



박 재 찬(달리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강의 개요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고, 협력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PBL!

‘PBL은 어렵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교사 자신의 수업에 PBL을 적용할 수 있도록 PBL 수업의 디자인 및 운영 방법, Tip을 제공하는 과정.

강의 특징

-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러나 재미있고,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하게!’ 설명.
- 강사(현장 교사)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한 생동감 넘치는 PBL 수업 방법 제시.
-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실패 원인도 함께 소개하여 수강하는 교사의 수업 적용 시, 도움이 되는 강의.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생강차, 색다르게 즐겨보자



글. 장경진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겨울 대표 건강 차, 생강차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알싸한 매운맛이 매력적인 생강차는 몸에 열을 올려주어 겨울 대표 건강 차로 손에 꼽힌다. 생강에는 단백질분해효소가 들어 있어 소화를 돕고 위장운동을 촉진하며, 열을 발생시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항염 효능이 뛰어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여 감기, 만성 질병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생강차를 색다르게 즐기는 법을 소개한다.



생강차

생강차 간단하게 만드는 법

준비물 생강 1~2개, 꿀 또는 설탕

- 조리법 ① 생강의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씻는다.
② 손질한 생강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③ 자른 생강에 물을 넉넉히 넣고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 10분~15분 정도 끓여 생강을 우려낸다.
④ 우려낸 생강차를 기호에 따라 설탕 또는 꿀을 넣어 마신다.



생강귤피차

생강귤피차 (귤강차 橘薑茶)

겨울, 제철 과일인 귤을 먹고 난 후 남은 귤껍질을 활용하여 향긋한 차를 음미할 수 있다.

효 능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
피로회복을 돕고 감기를 예방한다.

준비물 깨끗하게 씻어 말린 귤껍질 20g, 생강 20g, 물 1.5ℓ

- 조리법 ① 말린 귤껍질과 편으로 썬 생강, 물을 함께 넣어 끓인다.
②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인 후, 귤껍질과 생강을 체로 걸러준다.
③ 맑은 차를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타서 마신다.

생강레몬차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몬은 생강의 매운맛을 희석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효능 초기 감기에 특히 좋다. 목 통증, 기침을 가라앉히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

준비물 레몬, 생강, 꿀 또는 설탕, 소독한 용기

- 조리법**
- ① 레몬은 베이킹파우더와 굵은 소금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어 얇게 썰어준다. 이때 씨는 모두 제거한다.
 - ② 생강은 껍질을 벗긴 후 깨끗하게 씻어 편 썰어놓는다.
 - ③ 소독한 용기에 생강과 레몬, 설탕을 켜켜이 담는다. 이때, 생강과 레몬의 비율은 기호에 따라 결정하며, 설탕은 생강과 레몬을 합친 무게만큼 넣는다.
 - ④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며, 설탕이 다 녹은 이후에는 냉장 보관한다.



생강레몬차



생강밀크티



생강밀크티

집에 있는 홍차 티백을 이용하여 색다른 차를 즐길 수 있다. 이때 꿀 또는 설탕을 생강의 양보다 많이 넣어야 부드러운 생강밀크티를 만들 수 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적격이다.

준비물 우유 한 컵, 홍차 티백, 간 생강 1스푼, 꿀 또는 설탕

- 조리법**
- ① 냄비에 우유, 생강, 홍차 티백을 넣고 약한 불에 끓인다.
 - ② 우유 가장자리에 거품이 맺히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홍차가 우러날 때까지 약 5분간 놔둔다.
 - ③ 거름망으로 걸러 낸 후, 기호에 따라 꿀 또는 설탕을 넣어준다. ㉠





저자: 최선경 외
출판사: 줄거은학교

학생 중심의 혁신적 교육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 교육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체인지메이커의 시대가 온다

오늘날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리더나 전문 단체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기 주도적인 실행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즉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이다. 체인지메이커는 공감 능력, 리더십, 팀워크 및 주제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다.

청소년기에 크든 작든 행동을 통해 내 주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 간다면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자라나는 세대가 꿈을 품고, 팀을 이루고, 자기가 속한 세상을 바꾸어 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체인지메이커 교육이다.

미래 사회의 인재를 키워 내는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

대구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연구회의 교사들은 체인지메이커 여정과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에르디아 비경쟁 토론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여 그 해결책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해 온 과정을 이 책에 담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할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함께 노력한 교사와 학생들의 변화와 도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 줄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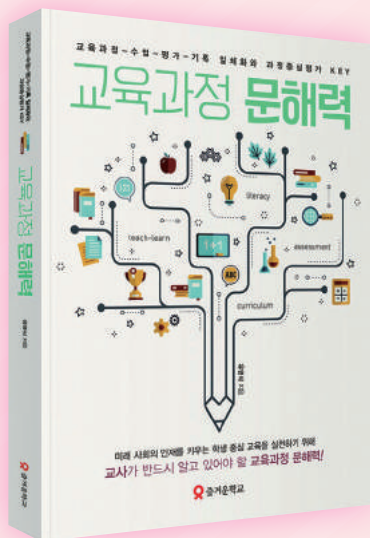
“

크든 작든 내 주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 간다면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다.

”



저자가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 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저자: 유영식 출판사: 전라교육

교육과정 문해력은 20개의
챕터로 나누고 구체적 실천
지침과 저자가 직접 실천한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여 삶과 실천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와 과정중심평가 KEY

교육과정 문해력

모든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본질을 담은 책,
「교육과정 문해력」

교사가 전문적인 이유, 바로 교육과정 문해력입니다

이 책은 최근 교육계 이슈이면서 모호한 개념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과정중심평가, 배움 중심수업에 대한 개념을 그림과 도식을 활용한 비주얼 싱킹 기법으로 누구나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 전체를 20개의 챕터로 나누고 구체적 실천 지침과 저자가 직접 실천한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여 삶과 실천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미래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육과정 문해력」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과서 순서대로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 내용 전달자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과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문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디자인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교육과정 문해력'이다.

이 책에는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담론과 논의는 물론 이에 대해 필자가 다양한 학교 현장에서 실천했던 실천 가이드까지 실려 있어, 교사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볼 수 있는 눈과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 가는 행복 솔루션

수업 방해

수업 방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교사 주도형 문제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협력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집단 따돌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안내서!

현직 교사들이 추천하는 학급경영 필독서!
교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과 교수법을 만난다!

많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수업’과 ‘학급경영’이다. 그동안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등 학습 방법론은 꾸준히 연구됐지만, 정작 교수-학습 활동의 바탕이 되는 학급경영은 교사 혼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사가 학급 내 발생하는 훈육 문제와 학생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자는 수업 방해에 대

한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좋은 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학급경영 중 특히 수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수업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각각 다른 학급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폭넓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한스 페터 놀링 외 | 출판사: 중앙교육

학교 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

학교 자치

“획일화된 학교 문화, 하향식 의사결정, 학교 구성원들의 수동적인 참여 등 중양집권형 교육행정 문화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교 자치로 가야 한다. 이 책은 학교 자치 시대로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화두를 던졌다.”

김현섭 /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

2018년 교육계의 화두, 학교 자치!
학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교육 민주주의를 말한다!

2018년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 자치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지침을 제거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학교 자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자치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자치」는 평범한 현장 교사들로부터 기획되었다. 하지

만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모든 주체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자치를 이야기한다. 교육 주체로서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의 학교 자치에 대한 진단과 요구까지 담아내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학교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저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출판사: 중앙교육

2019 학생교육 활동계획지원



학교 예산이 많아도 적어도 계획 가능!



인성/심리



진로진학/학습



SW/메이커



예방/보건



체험/행사/연극

즐거운학교와 함께 학교급 별 최신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목표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해보세요~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창의인성체험 심리검사

SW/메이커교육 진로캠프



중등

자기주도학습역량

자유학기제 창의인성체험

전환기 진로교육 두드림 학습클리닉



고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진학컨설팅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해소



교육문의

 **즐거운학교**

교육사업팀 정소희 선임

☎ 070-8282-0140

✉ school@teacherville.com

🌐 school.teacherville.co.kr



교육 문의를 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소정의 상품
(마우스패드) 증정



권선생 단상툰

그림. 최성권
청주 증안초등학교 선생님

과학실에서 구연산을 구해다
전기포트를 씻었다.



뭔가 구연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씻은 거 아냐?



잘 안
씻겨졌나?

구연산 먹으면 몸에
안 좋겠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

구연산 효능...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노화방지, 숙취 해소, ...



구연산 더
넣어야겠다.

butigi7

청소용품 같은 건 줄 알았다.

2. 영어인사

영어수업을 하다보니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어로 인사를 한다.



그러다보니 나도 영어로 맞인사
를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선생님



butigi7

본의아니게 영어 과시.



3. 대회준비



butigi:7

원샷



4. 독서모임



butigi:7

초과근무하는 느낌이었다.

티처빌 플랫폼 '쌤동네'에서 4컷 웹툰 '권선생 단상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쿠카'와 밴드 스티커 '수줍은 눈토끼, 토몽이'를 출시하는 등 그림 그리는 교사 권선생입니다. 저서로는 '쿠카의 코딩 크래프트', '메이크코드&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쌤동네모임 교사를 위한 온오프믹스

오프라인 모임 관리 서비스

연수, 세미나, 소모임을 모집·홍보·운영할 때

쌤동네 모임 기능을 이용하세요!

5분만에
손 쉽게
모집 페이지
개설

교사 대상의
모집 홍보
지원

모집 현황
및 신청자
정보관리

참가비 및
정산 관리

“교사를 위한 모임이 교사에게 홍보된다”



티처빌 50만명
회원 대상 홍보



티처빌 메인 페이지
모임 노출



정기메일, 블로그 등에
모임 소개



SNS홍보 지원



QR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쌤동네’를 검색하세요!

쌤동네



당 티처몰에서 20% 할인 받고

박물관 현장체험학습 크레커로 쉽게 준비하세요!



퀴즈



이야기



게임



전국 8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만나보세요!

전쟁기념관



경기도박물관



제주민속촌



한국잡월드



인천개항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수원화성박물관



과천과학관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테크빌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티처빌

티처빌 www.teacherville.co.kr
교사 연수를 넘어, 교사를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키즈티처빌

키즈티처빌 kids.teacherville.co.kr
영유아 교사를 위한 교육 플랫폼

 즐거운학교

즐거운학교 school.teacherville.co.kr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의
비교과 학생교육 서비스

 부모공감

부모공감 www.bumoschool.com
행복한 부모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